

일본 출판계 2006년 동향 결산

글 백원근 사단법인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2006년 일본 출판시장 매출규모가 지난 1월 하순에 발표됐다. 출판과학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도서는 전년보다 1.4% 성장한 9,326억 엔으로 신장한 반면, 잡지는 전년 대비 4.4% 감소라는 과거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률로 1조 2,200억 엔에 머물렀다. 도서시장의 약진은 4종의 밀리언셀러, 저렴한 단행본과 문고본의 활황, 이른바 '휴대폰소설' 출판의 확장, 노년층 대상의 습자·습화책과 학부모를 위한 아동교육서 등의 호조가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서 발행 종수는 자비출판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1,200종 정도 증가한 7만 7,722종이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도서 평균 가격이 4년 연속 하락하며 1,181엔(약 9,500원)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공들인 기획물일수록 가독성을 고려해 활자를 키우고 페이지를 줄여 저가의 정가를 설정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일반 문고판보다 약간 길쭉한 판형인 신서(新書) 분야가 도서 전체 베스트셀러 상위 30종 내에 11종이나 포진해, 2004년의 4종에서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외에 베스트셀러 위주의 판매량 양극화 현상, 미디어 영향력의 확대도 전년에 이어 지속됐다.

출판계 동향에 대해서는 권위 있는 출판 전문지 <출판뉴스>가 발표한 2006년 10대 뉴스에 해설을 곁들여 소개하고자 한다.

① 서점 경영실태 발표

서점은 출판시장의 최전선이기에 그 실상을 주시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일서련(일본서점상업조합연합회)이 6년 만에 발표한 <전국 소매서점 경영실태조사> 보고서가 눈길을 끌었다. 이번 조사에는 전국 2,028개 서점이 응답했는데, 회원사의 다수가 중소형 서점인 관계로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토로한 곳이 85.6%나 되었다. 원인으로는(복수응답) 고객 감소(84.2%), 대형서점 증가(44.7%), 입지환경 악화(40.0%), 화제도서 확보난, 신형 중고서점의 영향력 증대, 경쟁 서점 등장 등이 지목됐다.

일반 출판물 이외에 취급하는 겸업 상품으로는 문방구, 교과서, CD·비디오, 중개업무(택배, 사진 현상·인화) 등이 꼽혔다. 또한 대다수 서점이 잡지 매출(약 70%)에 과다 의존하고 있

으며, 이로 인해 서점 근처의 24시간 편의점과 경합하는 양상이 부각됐다. 향후 서점의 생존 대책으로는 지역 밀착화(44.6%), 외부영업(外商) 강화(31.9%), 전문점화(19.9%)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었고, 일서련의 과제로는 서점 마진을 확대, 고객 주문품의 신속한 입하 등을 요망했다.

일서련은 이를 토대로 5월 총회에서 마진을 확대, 결제 기한 연장 등을 핵심으로 경영환경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했다. 10월에는 매절제를 바탕으로 마진폭을 확대하는 '신 판매시스템'을 전격 도입했으나 당초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② 저작물 보호기간 연장 문제 '점화'

일본문예가협회 등 저작자 관련 16개 단체로 구성된 창작자 단체협의회는 9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저작자 사후 50년까지에서 70년까지로 연장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대다수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국제 수준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법제화시켜 정부가 표방하는 '지적재산입국'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창작자들의 움직임에 대해 중립 또는 반대 의견을 가진 이들의 모임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문제를 생각하는 국민회의'는 11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 권리자단체의 입장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건이 반영되도록 국민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의 격돌과 정부의 움직임은 일본 출판계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관심이 아닐 수 없다.

③ 문고, 신서 등 '작은 책들의 전성'

이미 과포화 상태인 신서 시리즈의 창간이 매우 활발했다. 2003년 4월 시작된 신초(新潮)신서는 창간 1,000일 만에 누계 1,000만 부를 기록했으며, 요로 다케시의 《바보의 벽》 등 '벽' 3부작을 히트시킨 데 이어 작년에는 후지와라 마사히코의 《국가의 품격》(230만 부 판매)이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등극했다.

소프트뱅크신서, 아사히신서, 겐토샤(幻冬舎)신서 등 영향력



◀ 기노쿠니야서점 직원들이 직접 읽어본 신간 중에서 뽑은 2006년 베스트 도서 30 권(장르 불문)의 추천 마크. 베스트셀러 목록과는 거의 겹치지 않는 점이 특징. ▲ 2006년 화제의 책들

있는 출판사들의 연달아 창간됐다. 아사히신서는 시의적 감각과 책 표지 공모로 화제를 모았으며, 겐토샤신서는 정보와 지성을 키워드로 신문 전단광고 마케팅을 펼쳤다. 문고 분야에서도 다이와문고, 츠케이문고, 그리고 라이트소설 관련 문고 시리즈가 줄을 이었다. 하야카와 연극문고, 코분샤 고전 신역(新譯)문고 같은 특색 있는 문고도 선보였다.

④ 문자·활자문화 진흥기구 설립 추진과 독서환경 조성

독서 관련법 제정을 주도한 전직 중의원 의원이자 동화작가인 히다 미요코가 작년 6월부터 출판문화산업진흥재단(JPIC) 이사장에 취임하여, 2005년 7월 제정된 문자·활자문화진흥법의 구체적 정책 실현을 위한 민간 추진기구 준비모임을 10월에 결성했다. 11월에는 관련 분야별 인사를 모아 '언어의 힘과 일본의 미래'라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2007년 10월까지 추진기구 설립하며, △2010년을 '국민 독서의 해'로 만들기 위한 국회 의결 추진(2000년은 '어린이 독서의 해'였음), △어린이들의 언어력과 독서력을 키우려는 '신 학교도서관 도서정비 5개년 계획' 책정을 국가와 각 지자체에 요구하기로 했다.

⑤ 헌법, 교육기본법 관련서 속출

고이즈미에서 아베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그간 최우선 과제로 여기던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2006년 말 통과되었다. '교육 재생'의 일환인 교육기본법은 전문(前文)에 '헌법과의 일체성'을 강조하여 헌법 개정의 포석을 깔았는데, 오에 겐자부로 공저의 《왜 바꾸나? 교육기본법》 등의 비판서가 주류를 이뤘고 《헌법9조를 세계유산으로》 같은 헌법 관련서가 많이 발행했다.

⑥ 도서관의 자유론 대두

지난 8월 야마구치(山口)현의 전문대 여학생이 살해된 데 이어 지명수배 중이던 동급생 남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이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던 언론의 태도는 <주간 신초> 보도 이후 달라졌다. 그런데 일부

공공도서관에서 이러한 신문·잡지의 열람을 부분 제한시킴으로써 '알 권리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10월에 열린 전국도서관대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는데, 도서관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는 한 열람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정리되는 '지극히 일본적인' 분위기가 연출됐다.

⑦~⑩ 출판 트렌드 : 양극화, 아동교육서, 실버출판, 《다빈치 코드》, 웹 2.0 등 화제

베스트셀러 《하류사회》(2005.9 발행) 이래 양극화(格差社會) 문제를 다룬 책들이 속속 출판되어 인기를 모았다. 아동교육서로는 《아이 키우기 해피 어드바이스》(80만 부), 《거울의 법칙》 등이 화제의 책이었다.

장수하는 고령사회 일본은 실버출판 시장 역시 크다. 일본명화나 세계명화를 본문에 열게 인쇄한 그림 색칠('누리에'塗り繪) 책들이 2005년 말부터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어른의 색칠책》(150만 부 판매)이다. 100만 부 가까이 팔린 《연필로 쓰는 '한쪽 좁은 길'》(하이쿠 명인 마츠오 바쇼의 기행문)처럼 글자를 덧쓰는 책도 인기였다. 동요, 창가 등을 키워드로 노년층의 아련한 추억과 향수를 자극하는 습자책이 인기 품목으로 정착되면서, 20~30대 젊은이들까지 노화 예방 겸 재미 삼아 구매층으로 가세했다. 간단한 산수 문제 등을 푸는 '두뇌 단련책'과 상승효과가 일어났으며 숫자 퍼즐 잡지도 여럿 창간됐다.

글로벌 베스트셀러 《다빈치 코드》 일본판은 다양한 마케팅과 서점 책임판매제에 힘입어 단행본과 문고를 합해 1,000만 부를 돌파했다. 3월에 발행된 3권짜리 문고본이 4개월 만에 800만 부나 팔렸기 때문이다. '해리 포터' 시리즈 6탄의 일본판이 5월에 발행돼 200만 부의 초판 발행으로 서점가를 대목으로 만든 것 못지않은 호재였다.

한편 《웹 진화론》을 필두로 구글, 아마존, 블로그, 웹 2.0, 유튜브 등을 표제로 삼은 관련서들이 속속 발행되며 다양한 각도에서 인터넷 시대에 적응하려는 독자들의 눈길을 붙잡은 한 해였다. [4]